세대공감·오감만족…전통·현대 어우러진 축제 함께해요

광주문화재단-일본 북해도문화재단 문화 교류 '무등울림축제'
24~25일 전통문화관…고영열·황애리·예결밴드 '피아노 병창'
'사자 길들이기 대작전!'·'둥둥! 국악놀이터' 등 어린이 체험도

광주 동구 운림동 전통문화관에서 오는 24~25일 '2025 무등울림축제'가 펼쳐진다. 왼쪽은 공연을 펼칠 고영열. 〈광주문화재단 제공〉

5월의 끝자락,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전. 가족과 함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축제 현장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오감으로 즐기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2025 무등울림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광주 전통문화관 일대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대표 이사 노희용)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 광주의 무등산과 오랜 교류를 이어온 일본 북해도의 푸른 바다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산'은 전통의 뿌리를 지키는 가치를, '바다'는 현대 예술가들의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일렁이는 창조의 에너지를 환기한다. 재단은 북해도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성과 세계성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축제의 문은 24일 오후 2시 너덜마당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젊은 예술가들이 첫 무대를 장식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광주 국악방송과 함께하는 개막 축하 공연에는 '피아노 병창'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고영열, 서도민요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예결밴드', 우쿨렐레와 판소리를 결합한 무대로 활동 중인 황애리가 출연해 전통의 경계를 넓힌다.

국악밴드 aux가 지난해 공연하는 모습.

오후 3시에는 토요상설 공연의 일환으로, 광주시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문명자 명창의 '가야금병창 다섯마당' 무대가 이어진다. 수궁가, 적벽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다섯마당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박시양 고수(판소리고법 보유자), 김승호 대금 연주자와 함께 깊은 전통의 울림을 전한다.

25일 오전 11시에는 광주 청소년 무용인들의 무대인 '제20회 빛고을 청소년 춤 축제'가 펼쳐진다. 한국무용부터 발레, 현대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이어지며, 광주 무용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열정이 무대를 수놓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국악인들의 공연 '산의 소리'가 예정돼 있다. MBN 예능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 TBC '풍류대장-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화제를 모은 가야금병창 임재현, 해금 연주자 김도아가 전통음악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폐막공연은 오후 3시, 일본 북해도의 전통예술단체 '란뵤시(亂拍子)'가 무대를 장식한다. 일본 전통 북 연주와 타테(연극이나 영화 난투장면에 사용되는 동작)를 바탕으로 한 무용극이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하며, 공연 종료 후에는 일본 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공연 외에도 가족, 연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24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사자 길들이기 대작전!'에서는 직접 사자탈을 만들어보고, 신명나는 사자탈춤 동작도 배워볼 수 있다.

25일에는 '둥둥! 국악놀이터'가 열려 다양한 국악기를 직접 보고, 만지고, 소리를 들어보며 전통 악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도예가 홍성우 작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분청자 만들기, 우리 전통 방식으로 단양주를 빚어보는 전통주 체험 등도 준비됐다. 솟을대문 앞에서는 오후12시부터 민속놀이, 한복 입어보기, 떡메치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 놀이가 이어진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문화장터 '누리랑께'도 운영돼, 관람객들은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해 쌀과 김치 같은 지역 먹거리와 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운림동 일대에서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무등울림축제와 연계된 부스 4곳 이상에서 스탬프를 모으면, 미니 손풍기가 증정된다(한정수량). 참여 부스는 국윤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드영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의재미술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전통문화관 등이다. 축제 참가자들을 위한 '인생네컷' 촬영 이벤트도 흥겨움을 더한다.

노희용 재단 대표이사는 "무등산 자락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작한 무등울림축제가 어느덧 11회를 맞았다"며 "지역 공동체, 국악단체, 미술관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문화와 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기고 체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장인의 손길로 예술을 빛내다

명장명인장인협회 19명 작품 20점
21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김진숙 작 '홍매화 피다'

명장, 명인, 장인.

자신만의 한 길을 오롯이 걸으며 작품세계를 일궈온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에게선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느껴진다. 복잡다단한 오늘의 세상에서 한 길을 고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을 지금도 우직하게 뚜벅뚜벅 걷는 이들이 있다.

명장 명인들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들을 만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열리는 광주 동구 명장명인장인전이 그 것. 명장명인장인협회가 '장인의 손길로 예술을 빛내다'를 주제로 펼치는 이번 전시는 19명의 작품 20점이 출품됐다.

참여 작가는 강현숙, 고경주, 김명균, 김생수, 김선아, 김일락, 김정하, 김진숙, 김충식, 남영숙, 노진양, 이숙자, 임종찬, 전병원, 정인순, 정찬이 등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관객들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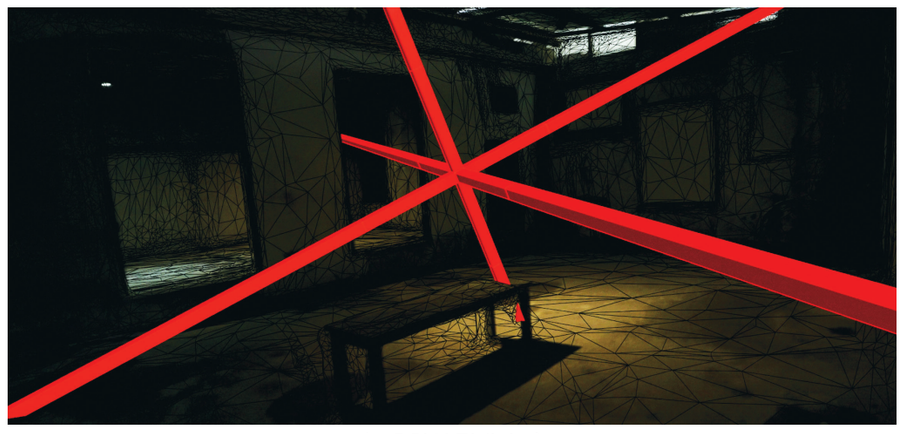
정인순의 '오색고전여의주문보'는 고아하면서도 단아한 조각보로 눈길을 끈다.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작품을 수았을 마음이 느껴진다. 화려하고 이색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사람에 대한 따스한 정이 깃든 작품은 예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김진숙의 '홍매화 피다'는 홍매화를 입체적이면서도 미려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매화 꽃 잎들에선 섬세한 손끝의 감각과 아울러 깊은 마음이 읽혀진다.

정인순 회장은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지닌 회원들이 예술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저마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회원들의 노고와 시간이 관람객들에게 의미있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창립한 동구 명장명인장인협회는 전통공예 전승을 비롯해 공예인 양성, 국내외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호함의 절대좌표'

노유승 작가와 함께하는 'GB 작가탐방'

29일 스페이스 DDF

작가들이 자아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등 장르는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예술은 궁극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노유승 작가는 자아를 시각좌 좌표로 표현한다. '매치무빙' 기술을 매개로 고정화되지 않고 유동적인 자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해왔다.

노유승 작가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는 29일 광주비엔날레가 진행하는 'GB 작가탐방'에서다. 스페이스 DDF에서 펼쳐지는 이번 작가탐방은 노 작가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삼선 구조를 비롯해 비정형적 형상 등이 어떤 의미가 있고 작가가 상정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고 사유할 수 있다.

작가탐방 대화에는 김성우 큐레이터가 참여한다. 김 큐레이터는 노 작가가의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각화의 정체성과 모호성에 대해 심도깊은 질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요성 비엔날레 사무처장은 " 'GB 작가탐방'은 작가와 관객이 만나 예술세계를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라며 "이번 노 작가의 작품 속 좌표 등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사유들이 거론되고 공유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예의 온기, 거리·공간·사람을 잇다

'2025 공예주간' 25일까지 ACC·충장22서 전시·체험

공예의 온기가 도심을 채운다. 예술가의 손끝에서 완성된 작품들이 거리와 공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다.

일상 속에서 공예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2025 공예주간'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스튜디오 연재가 기획을 맡았다.

올해 주제는 '공생공락(共生共樂)'. 공예를 매개로 전통과 현대, 지역과 청년, 공예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전시, 체험, 마켓, 인문학 강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예의 가치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청년 공예가 30여 명이 참여해 각자의 작품과 이야기를 선보인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B2에서 협업 전시와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도예가와 플로리스트가 함께 만드는 '흙으로부터 온 정원, 그 후 이야기'를 비롯해 청년 작가 6명의 도자기 작품전 '빛의 향연, 광주에서 잇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협업한 '청년 공예가들의 공생공락' 등의 전시가 마련됐다.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열린다. 동구 동명동의 '연재, 아카이브메모리즈'에서는 21일까지 한지죽 화병 만들기와 플라워 센터피스 체험을 운영하며, ACC에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이끼볼 만들기 체험이 열린다.

이밖에도 충장22, ACC 등 문화예술 공간에서 지역 공예가들의 전시와 마켓이 이어진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예의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솔 스튜디오 연재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공예가들의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작품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빛의 도시 광주에서 펼쳐지는 공예의 감성적인 세계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에서 진행되는 이끼볼 만들기 체험 모습. 〈스튜디오 연재 제공〉

자연에서 비우고 채우는 '국악 치유 명상'

국립남도국악원, 6월 14일 야외마당…선착순 80명 무료

6월 5일은 '국악의 날'이다. 세종실록에 '여민락(與民樂)'이 처음 기록된 날을 기념해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전통예술의 가치를 되새기고 확산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국악의 날 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남도국악원이 국악과 명상을 결합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국악 치유 명상'은 오는 6월 1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립남도국악원 야외마당에서 열린다. 오는 20~30일 접수, 선착순 80명 무료.

이번 프로그램은 국악을 지키고 이어가면서, 지역민들이 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제는 '비우고 채우다'. 진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국악 연주와 명상 체험이 어우러진 치유의 시간이 펼쳐질 예정이다.

명상은 '입문-깨달음-알아차림-채움'의 단계로 구성돼, 자기 인식과 내면 성찰을 유도한다. 참여자들은 움직임 명상, 호흡 명상, 에세이 명상, 오감 명상 등을 통해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비워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불어 기악합주 '천년만세', 대금독주 '청성곡', 단가 '사철가' 등 다채로운 국악 공연도 함께 진행돼, 치유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이다.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은 "첫 국악의 날을 맞아 천혜의 자연 속에서 국악과 명상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마음의 여백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쉼과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